

# 丙子亂 題材 時調攷

梁 淳 秘

## 1

1. 오랜 歷史와 傳統으로 물들은 時調文學을 통하여 兩朝의 政治的 文化的 側面을 端的으로 나타내 推證할 수 있음은 진실로 다행한 일의 하나다.

곧 高麗末의 數首로써 憶昔의 麥秀歌로 가름할 수 있으며, '何如歌'와 '丹心歌'를 통해 化家爲國의 野心과 秋霜烈日의 衷心을 터득하고 남는다. 더구나 遺臣들의 懷古歌와 建國에 따르는 創業의 頌詠과 文物制度의 安定에 따르는 江湖閑情歌와 先賢의 追慕와 儒敎의 理念을 詠出한 道德歌와 士禍와 黨爭으로 말미암은 謫地에서의 自歎歌 등을 통해 그 時代의 背景을 더듬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 作業에 속한다. 특히 壬辰亂과 丙子亂을 題材로 한 悲憤慷慨와 憂國忠節歌는 國家와 민족의 龜鑑인채 千古의 愛誦을 獨占한다. 물론 間問 戀慕와 哀歡, 閒適과 無常, 諷刺와 自覺의 노래, 그리고 平民作家들에 의한 近代意識을 取材한 作品이 時代와 作品의 異香을 史乘에 비길 만큼 거나하다.

한편 士禍를 둘러싼 山林學派의 攘頭와 이로 起緣한 分爭 그리고 理氣說로 인한 學派의 對立 등은 드디어는 黨爭을 招來하는 悲劇을 가져왔고, 이 時代的 社會的인 背景을 곧장 作品에 反映되어 文學思潮보다도 時代思潮에 迎合하는 奇現象을 낳았다. 더구나 壬辰의 尤린과 丙子의 恥辱은 傳統의인 時調文學의 變風을 가져와 일찌기 찾아볼 수 없는 慨世文學을 남기게 하였다. 따라서 政治와 文學이 거의 支配階層의 獨占이었던 당시에 있어 時調는 곧 痛哭의 方法이요 咀呪의 手段이었다.

더구나 近世에 접어들어 實事求是의 北學思想이 밀물처럼 번져, 이른바 인간의 自覺, 自我의 發見이 싹터 文學과는 疎外됐던 平民階層에 그 뿌리가 박히기 비롯하여 微微하나마 自我意識이 감도는 近代가 形成되어 英正時代의 拈花를 보고, 韓末의 結實을 보았던 것이다.

이 論攷는 歷史的 屈辱인 丙子亂을 겪은 이후 그 悲劇을 題材로 한 作品들을 中心으로 삼아 그 主流的인 內容을 分析 考察함과 동시에 아직도 定立되어 있지 않은 丙子亂을 題材로 한 時調가 지니고 있는 國文學史의 位置를 設定해 봄이 懸案의 問題다.

2. 이 丙子亂을 題材로 한 時調研究는 丙子亂을 取材하였거나, 또는 그 匪風下泉의 悲憤을 題材로 한 時調의 文學的 內容과 主流 등의 實相을 파악하고, 丙子亂을 題材로 한 時調에 나타난 先人들의 國家觀과 人生觀을 살펴 보고, 그들의 思想 感情을 통해 丙子亂을 題材로 한 時調에 담겨진 당시의 社會相과 生活相의 一端을 考察할 수 있음에 그 意義가 있다.

그리고 政治的 時代的 狀況이던 國難이 人間社會와 國家民族에 끼친 바 影響을 側面으로 理解하고, 國恥의 侮辱과 民族的 受侮 등을 어떻게 時調를 빌어 노래하고 表白했는가를 考察하는 한편, 이 丙子亂을 題材로 한 時調文學을 통하여 實測해 보고자 한다는 데에도 本旨가 있다.

이 論攷의 限界는 李朝時代의 仁祖朝에 겪은 丙子亂 곧 1636年을 頂點으로 하여 그 時代的 狀況을 題材로 한 作品을 그 研究의 對象으로 限定한다.

그리고 丙子亂 이후의 時代的 限界는 1627年 丁卯亂을 起點으로 삼아 孝宗이 北伐政策을 推進하던 1660年代까지로 定하여 그 時代에 活動한 時調作家는 일단 丙子亂의 國恥를 直接的이건 間接적이건 影響을 받은 것으로 하여 이 論攷를 展開하기로 한다.

## II

丙子亂을 題材로 한 時調는 丙子亂이란 時代的 狀況에 直面하여 그것을 題材로 삼아 創作되어진 作品을 말한다. 時調作家로서 丙子亂을 겪은 사람을 헤아라 보면 相當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丙子亂을 題材로 한 時調作家는 불과 22名이요, 作品도 52首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의 題材란 것은 丙子亂을 直接 겪고 그것을 노래한 時調가 있는가 하면, 丙子亂을 겪은 다음의 作家의 心的 狀況을 노래한 時調도 포함된다.

丙子亂時調의 作家 22名, 作品 52首를 分析하여 大別하면, 첫째 鳳林大君과 金尙憲을 中心으로 한 腸斷의 雪窖歌와 둘째 '悲歌'를 노래한 李廷煥의 作品과 셋째 其他 作家의 怨恨歌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1. 본시 雪窖歌의 비릇은 前漢 때의 李陵과 蘇武의 故事에서 비롯된다. 匈奴와의 對戰에서 敗하자 單于에게 人質로 잡혀가 무려 20年을 살아 그 때 李陵과 蘇武의 唱和詩가 五言詩의 起源이라고 한다. 더구나 王昭君이 怨恨에 어린 琵琶曲은 騷人墨客이 현사를 사서 오늘에 이르른다. 이런 뜻에서 丙子亂 때 瀋陽에 人質로 잡혀간 昭顯世子和 鳳林大君, 그리고 後日에 致送된 金尙憲의 '雪窖集'은 此稿의 好資가 아닐 수 없다. 특히 鳳林大君은 後의 孝宗으로 當時의 切齒를 北伐로 다짐하게 했고, 金尙憲의 雪窖歌는 워낙 그 詞章의 出衆이 淸朝를 혼든 佳作이다. 따라서 丙子亂을 取材한 時調로는 단연 상침이 아닐 수 없다.

靑石嶺 지나거나 草河口 | 어떡시오  
 胡風도 춤도출사 구즌비논 브스일고  
 다투라져 내 行色 그려내여 님계신의 드리고자 <孝宗: 珍本 靑丘永言 217>

丙子亂의 뒷처리 때문에 人質로 잡혀가는 鳳林大君의 하소연이다.<sup>1)</sup> 이 作品의 表面에는 高貴한 王子의 몸으로 瀋陽에로 잡혀가며 부른 戀君의 情이 눈물겹도록 表白되고 있으나, 그 內面에는 차디찬 胡風 속을 굶은비까지 맞아가며 끌려가는 行색들을 통해 復讐心을 드러낸 感情이 吐露되고 있다.

이런 行색을 그려다가 父王께 드리려는 握拳의 復讐心은 드디어 他日 그가 王位에 올라서는 北伐의 先鋒을 앞장서게 하였다. 따라서 鳳林大君이나 孝宗의 이름으로 새겨진 臥薪嘗膽의 원한은 丙子亂時調의 표본이기도 하다. 鄭澈은 江原監司에 부임하면서 읊은 ‘麻東別曲’ 畵端에서 “平丘驛 물울 마라 黑水로 도라드니 嶺江은 어디메오 雉岳은 여기로다”로 지루한 行次를 한숨 지었다. 그러나 鳳林大君의 이 불모잡이는 오직 旅闕만이 기대될 뿐이다. 지긋지긋한 靑石嶺을 지나 草河溝로 떠난다. 여기에서 敗北者의 초라한 行色은 오히려 그럴 必要조차 없으니, 이 省略法은 時調에 있어 가장 妙하게 감춰져 있다.

이는 ‘過靑石嶺’이라 題하여

靑石嶺已過兮 草河溝何處,  
 胡風淒復冷兮 陰雨亦何事  
 誰畫其形像 獻文金殿裏 <松溪集·卷I>

腸斷의 限과 怨이 漢譯詩로 膾炙될 程度였다.

이제야 스랍되어 원몸에 깃시듯쳐  
 九萬長天에 수루루 소스올나  
 님계신 九重宮闕에 굶어불가 호노라 <孝宗: 六堂本 歌曲源流 139>

이는 瀋陽에 잡혀가는 行軍길에서 父王을 그리며 宗廟社稷을 걱정한 나머지 血書한 戀君歌

1) ‘孝宗實錄’ 即位年 己丑 5月條 “丙子之難仁祖大王 幸南漢城王在江都 日夜踰慕廢食涕泣屢募 死士起居行在丁丑隨昭憲世子入質于瀋陽”

#### 4 논 문 집

다. 王子의 신분에서 벗어나 한 人間으로서 온 몸에 것이 듣쳐 九萬里 長天에 솟아 올라 九重 宮闕을 굽어 보고 싶다는 情恨을 노래하고 있다.

人質의 몸이던 의례 匈奴에 잡힌 蘇武와 李陵의 故事가 引用된다. 따라서 기러기의 사연은 마땅한 부르짖음이다. 杜甫의 “何當有翅翎”의 부러움과 “安得如鳥有羽翅”의 안타까움이 날개를 그림계만 했다. 여기에서 鳳林大君인들 다시 노래할 거리가 없었으니, 굳이 보태지 않고 內質을 아로새긴 거기에 雪窖歌의 眞味가 있다. 일컬어 “글이란 만드는 데서 시들고 보태는 곳에 거짓이 앞선다”는 가르침이 셋별같다.

메 가는 저 기러기 漢陽城池 날 쇼겨나  
머근덧 위여 불너 이니 消息 傅홀쇼야 못 傅홀쇼야  
우리도 님보라 맞비 가는 길히니 傅홀동 말동호여라 <孝宗; 朴氏本 詩歌 15>

곧 鳳林大君이 長空의 기러기를 빌어 故國의 父王의 消息을 전해 듣고 자기의 소식을 전해 주고 싶어 해매는 꿈노래다. 靈魂을 날아갈 수 있는 새로 단장하는 게 古今人의 思考라고 할 때, 날아가기 쉬운 새를 통해 感情을 移入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불모로 잡혀가는 處地에서 腸斷의 恨이 섞인 戀君의 情을 노래한 作品 이외에도 鳳林大君은 丙子亂을 겪은 울분 속에 慷慨와 天數를 노래한 作品도 있다.

朝天路 보뵈단 말마 玉河關이 휘단말가  
大明崇禎이 어디러로 가시건고  
三百年 事大誠信이 꿈이런가 호노라 <孝宗; 六堂本 歌曲源流 222>

李太朝 이래 親明政策으로 交隣關係를 맺고 왔었으나 淸의 侵攻으로 國恥受難을 당하게 되고 아울러 淸의 新興勢力 때문에 明이 滅亡하고 보니 三百年의 事大誠信이 한바탕 꿈과 같다고 慷慨를 노래한 것이다. 곧 明과의 血誠事大<sup>2)</sup>가 무너지는 것은 당시의 事情으로선 血肉의 情이 斷切된 것 같은 腸斷의 恨이었다.

여기에서 指彈의 대상은 ‘大明崇禎’의 事大다. 당장 죽어도 明을 섬겨야 하고, 불모의 처지에서도 그것을 생각하는 철저한 親明思潮다. 이 親明思潮는 마침내는 明이 滅亡한 뒤에도 ‘崇禎後紀元’을 써야하는 망칙을 저질렀다.

淸江에 비듯는 소리 키 무이시 우음판터

2) ‘仁祖實錄’ 14年 丙子 12月條 “上泣曰 三百年血誠事大受恩深重而一朝將爲臣妾於雙虜豈不痛哉”

滿山紅綠이 휘드러져 웃논고야

두어라 春風이 냇놀이리 우을대로 우어라 <孝宗:一石本 靑丘永言 66>

잔잔한 淸江에 滴雨聲이 무엇이 그렇게 우스우냐 말이다. 비록 勢不利하여 降伏은 했을망정 호능청거리며 비웃는 滿山紅綠에 挫折된 나의 覺悟가 아님을 再三 誓記하고 있다. 고작해야 數日에 不遇할 胡勢로 인정하고 切齒하는 孝宗의 北伐意識에는 머리가 수그러진다. 그러나 한 가지 大明天地에 발붙는 그 事大와 親明이 그저 불상사납기만 하다.

日月도 예과 갓고 山川도 依舊하되

大明文物은 속절업시 간디 없다

두어라 天運循環하니 다시 불가 하노라. <孝宗:瓶窩歌曲集 34>

日月山川은 依舊하되 大明文物이 속절없이 간데 없어짐을 天數라 여기면서 그런 天數는 循環할 것임을 믿은 노래이다. 이른바 杜甫의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의 換骨이니, 이러한 보기는 麗末의 懷古歌에서도 어엿하다.

孝宗의 ‘燕京有感’은 바로 그의 血淚로 아로새긴 怨恨이요, 悲歌였다.

#### 燕京有感

萬里殊方作此行

時危事難一身輕

漢嬪怨恨琵琶曲

燕客悲歌出塞聲

滄海日月歸夢凋

玉河風冷旅魂驚

何時再上蓬萊殿

訴盡心中無限情

가노로 漢江水야 다시보자 木覓山아

故國山川을 석나고져 ㅎ랴마는

時節이 하 紛紛하니 다시 불동말동 ㅎ여라 <昭顯世子:樞花樂府 247>

昭顯世子<sup>3)</sup>가 역시 丙子亂의 뒷처리 때문에 瀋陽에 人質로 잡혀 가면서 故國山川을 떠나가는

3) ‘昭代紀年’ “昭頭世子 丁丑入瀋慶年東還”

6 는 문 집

陽斷의 恨을 노래한 것이다. 이 作家의 眞實을 가리키는 사뭇 어렵다. 그렇다고 金尙憲의 作이란 定說도 完全치는 못하다. 이는 그의 詩文集에는 보임이 전혀 없고 다만 歌曲集에만 보임에 서다. 특히 永言을 비롯한 各本에 金尙憲의 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權花樂府’의 昭顯世子作을 믿어야 할지는 再考를 要한다.

主辱臣死 | 라 하니 내 주검죽 하건마는  
큰 칼 너피 츄고 이제도록 사랏기는  
聖主의 萬德中興을 다시 보려 하노라 <麟坪大君:珍本 靑丘永言 398>

丙子의 國恥는 主辱臣死가 문제 아니었다. 淸은 昭顯世子, 鳳林大君 두 王子의 人質은 물론 이거니와, 繼續하여 多病한 麟坪大君의 불모까지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朝廷의 是非끝에 臥病의 몸으로 瀋陽에 잡혀 갔었다.<sup>4)</sup> 麟坪大君은 七言詩 ‘奉和樂善齊口號’에서

一天霜鴈送寒聲  
河漢迢迢夜氣晶  
臥病胡床仍不寐  
透簾明月照深情

이라고 表白하고 있다.

國恥의 大辱을 씻기 위해서는 죽어 마땅하지만, 큰 칼을 옆에 찬채 그러지 못함은 聖主의 萬德中興을 다시 보려고 이제까지 살아 있다는 丹忠을 노래한 것이다. 이어 麟坪大君은

바람에 휘엇노라 굵은 솔 웃지마라  
春風에 핀 꽃지 每樣에 고아시라  
風飄飄 雪紛紛 鴻제야 날을 부러리라 <麟坪大君:六堂本 靑丘永言 467>

사나운 바람에 약간 소나무가 굵었거나 휘엇졌을 뿐 그 엄청난 現實에 捕虜가 된 麟坪大君의 鬚은 너무도 초라했다. 國權이 넘어가는 마당에 歲寒然後의 松柏이 무슨 소용이나 말이다. 비록 節義만은 꺾을 수 없다 한들 些少한 바람에 흰 소나무의 신세가 가없기만 하다.

한편 仁祖 때 大提學이며 禮曹判書를 지낸 金尙憲은 仁祖를 扈從하여 南漢山城에 들어가서 對策을 講究하는 가운데 主和가 論議되고 마침내는 時間을 벌기 위한 國書의 草가 되자 그것을

4) ‘仁祖實錄’ 18年 庚辰 正月條 “麟坪大君 多病勢難獨往使之挈眷以去”  
同 19年 辛巳 2月條 “丙戌麟坪大君潛還自瀋陽”

젓어 痛哭했었다. 후에 斥和로 指目되어 瀋陽에서 三年 拘留되었었다.<sup>5)</sup>

瀋陽獄中에서 雪窖集을 내놓은 바 있는 淸陰의 孤節은 비단 國書를 찢은 일보다도 瀋陽에 잡혀가서도 그 氣概는 滔滔했다.

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細雨이 되어  
 님즈는 窓밖커 불거니 뿌리거니  
 날itto고 깊히 든 즘을 끼와불가 호노라. <金尙憲:瓶窩歌曲集 37>

獄中에서의 ‘한숨’과 ‘눈물’이 ‘바람’과 ‘細雨’가 되어 임이 자는 창밖에 불거니 뿌리거니 하여 날itto고 깊이 잠든 입을 끼와 보고자 하는 至忠의 表象이다.

그의 이러한 至情은 瀋陽獄中에서의 心情을 노래한 ‘雪窖集’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書懷二首復用前韻

占住城中第一家  
 憑高日月望京華  
 玉樓金闕無消息  
 千里相思百歎嗟 <淸陰集 卷之11 雪窖集 P. 42>

獄中에서 날따다 瀋陽을 바라다 보며 愁心에 겨워 못내 ‘玉樓金闕’을 향해 ‘相思百歎嗟’하는 作家의 心情을 엿볼 수 있다. 이어 淸陰은 獄中에서의 處地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金鳥玉兔드라 누 너를 쫓니판터  
 九萬里 長天에 허위허위 단이논다  
 이 後란 十里에 한번씩 쉬엄쉬엄 니거라 <金尙憲:瓶窩歌曲集 27>

瀋陽獄中에 갇혀 있는 몸이고 보니 日月이나 더디가야 生命이나마 扶持를 하련마는 金鳥玉兔마저 빨리 가니 그저 기가 막힌다는 것이다. 淸陰의 ‘瀋陽獄中遇’라는 七言詩를 보면

瀋陽獄中遇

曾事先王四十年

5) ‘國朝榜目’ “仁祖朝大提學爲禮曹判書 丙子屬駕南漢和議方定諸宰會于賓廳商議 尙憲手裂國書痛哭 崔鳴吉曰此義士也 扶而去之下城後入太白山中不返 淸人以斥和拘留瀋陽三年而還”

穆陵松柏已參天  
 當時侍從今誰在  
 頭目孤臣獨愴然 <淸陰集 卷之11 雪窖集 P.12>

孤臣의 愴然한 心情을 노래한 것을 엿볼 수 있다.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보자 漢江水야  
 故國山川을 석나고자 하랴마는  
 時節이 하 殊常하니 울등말동 하여라 <金尙憲:瓶窩歌曲集 223>

이 作品은 丙子胡亂을 題材로 한 時調로서는 너무도 人口에 膾炙되고 있는 노래다. 곧 斥和 派로 主和가 決定되자 ‘手裂國書痛哭’한 淸陰이다. 결국 主和派의 사단으로 綻露되어 擒車에 실려 瀋陽으로 잡혀가는 途中. 腸斷의 恨을 노래한 것으로 憂時憂國의 하소연이 45字에 차곡차곡 개켜져 있다.

南八아 男兒 | 死이언정 不可以不義屈矣여라.  
 웃고 對答하되 公이 有言敢不死아  
 千古에 눈물던 英雄이 몇몇친줄 알니오 <金尙憲:六堂本 靑丘永言 14>

이는

‘城陷賊以刃脅降巡 巡不屈 即牽去 將斬之 又降霹靂 雲未應 巡呼雲曰 南八 男兒死耳 不可爲不義屈 雲笑曰 欲將以有爲也 公有言 雲敢不死即不屈’ <韓愈:張中丞傳後序>

에 依樣한 轉用이다. 이렇게 前人의 脛踵를 換骨奪胎함이 뚜렷하지만, 요는 그 典故를 天衣無縫의 솜씨로 活用했느냐에 따라서 祖述은 값이 더해진다. 이 대목은 ‘死者遭慘酷 生者受困辱 身辱不足說’<sup>6)</sup> 한 感懷를 歷史的 實체로서 意識한 悲事 受難을 당해 꺾을 수 없는 節義의 念을 노래한 것이다.

離別 서름을 아나 蘇惹蘭만 다 못하다  
 織錦圖 龜文詩로 먼디님 오게 하니  
 織女도 그러곳하면 烏鵲橋 1들 이시랴 <金尙憲:瓶窩歌曲集 220>

6) ‘淸陰先生集’ 卷之12 ‘雪窖集’에 五言律詩로 된 ‘感懷’란 詩에 “死者遭慘酷 生者受困辱 身辱不足說 國耻河由雪 緬懷千古上 其人不可望 余生生苦晚 俯仰徒傷腕”



藩의 獄中에서 別恨을 노래한 것이라 보겠다. 이는

‘前秦武功人 字若蘭扶風 竇滔妻 滔仕苻堅爲 奏川刺史 有寵姬趙陽台 蕙嫉之 因與滔相  
作 及滔移襄陽 遂獨攜陽台之任 斷蕙音問 蕙悔恨自傷 因織錦爲文’ <中國人名辭典>

에 의거한 轉用이요, 換骨奪胎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別恨의 情은 淸陰으로 하여금 가는 途中  
에 孤臣去國의 ‘感懷’를 자아내게 했을 것이다.

感懷

形容憔悴鬢毛殘  
故國回頭望眼寒  
今夜長安月明裡  
碧紗紅幾燭人看 <淸陰集 卷之12 雪窟後集 P.1>

斥和로 一貫하던 淸陰이 뜻대로 名分을 내세우지 못하자 避世를 읊조리며 腸斷의 恨을 달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白沙汀 紅蓼邊에 고기엿는 白鷺들아  
口腹을 못메워 겨다지 굶니논다.  
一身이 閒暇호선정 술못진들 관계하랴 <金尙憲:瓶窩歌曲集 32>

곧 講和가 成立되자 南溪山城에서 下城後 太白山에 들어가 避隱의 心情을 노래한 作品이다.  
이어 淸陰은

梧桐에 듯는 빗발 無心히 듯건마는  
나의 시름하니 唸唸히 愁聲이로다.  
이 後야 임님은 남기야 시물줄이 이시랴 <金尙憲:瓶窩歌曲集 222>

天皇氏 지으신 집을 堯舜에와 灑掃ㅣ러니  
漢唐宋 風雨에 다 기우러 지거고나  
우리도 聖主 되서 重修하려 하노라 <金尙憲:瓶窩歌曲集 29>

南薰殿 돌봄은 밤에 八元八凱 다리시고

五絃琴 一聲에 解吾民之 慍兮로다.

우리도 聖主 뵈오와 同樂太平 하리라 <金尙憲:瓶窩歌曲集 28>

사무친 愁恨의 情에 젓는가 하면 腸斷의 恨을 안은 채 丙亂國恥로 일단 상처투성이가 된 집  
을 聖主를 모시어 重修하고자 함을 노래하며, 聖主를 모시고 同樂太平하겠다고 하여 感恩을 노  
태하기도 했다.

요컨대, 淸陰의 사무친 腸斷의 恨은 ‘送秋日感懷’란 七言詩에서도 詠出되어 있으며 그러한  
內容은 그의 詩的 主流이 기도 했다.

送秋日感懷

忽忽殊方斷送秋

一年光景水爭流

連天敗草西風急

幕積寒雲落日愁

蘇武幾時終返國

仲宣何處可登樓

騷人烈士無窮恨

地下傷心亦白頭 <淸陰集 卷之11 雪齋集 P.33>

한편 三學士의 한 사람이며 斥和派로서 瀋陽에 잡혀간 洪翼漢은 淸主가 왜 斥和를 하는가의  
물음에 臣下된 身分과 義理로서 마땅히 忠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 그의 作品  
에서는 다음과 같은 丹忠이 묻어나고 있다.

首陽山 나리들이 夷齊의 冤淚 1 되야

晝夜不息 하고 여홀여홀 우는 뜻은

至今에 爲國忠誠을 못내 슬허 하노라 <洪翼漢:六堂本 靑丘永言 181>

主辱臣死 하니 내몬져 죽어져서

魂歸故國호미 나의 願이려니

어즈버 胡塵이 蔽日호를 츠마 어이 보리오 <洪翼漢:가람本 靑丘永言 86>

前者는 爲國忠誠을 노래했고 後者는 魂歸故國함이 所願임을 노래하였다.<sup>7)</sup> 前者에서 爲國忠誠을 슬퍼한 것은 보다 強烈한 忠誠을 바라는 丹忠의 表白이며, 後者에서 魂歸故國하고자 한 것은 입을辱되게 한 臣下로서 죽음을 각오한 腸斷의 恨이 섞인 丹忠인 것이다.

楚江 漁父들아 고기낙가 숨지마라

屈三閭 忠魂이 魚腹裡에 드러누니

아모리 鼎鑊에 술문들 變호 줄이 이시라 <李明漢:瓶窩歌曲集 677>

李明漢은 ‘是能文之人’<sup>8)</sup>이다. 그도 瀋陽으로 押入당한 바 있는데<sup>9)</sup> 屈原의 節義를 빌어 鄭夢周의 ‘丹心歌’에 나타난 節義의 血脈을 이어가는 內容의 節義를 노래하고 있다.

시벽서리. 지는 돌에 외기러기 우리 열제

반가운 님의 소식 형여 울가 님랏더니

다만지 蒼茫호 구름밖기 빈소리만 들니더라 <李明漢:瓶窩歌曲集 788>

외기러기 울며 날아갈 때마다 반가운 님의 소식이 전해 울까 바래보나, 蒼茫한 구름 밖에 빈 소리만 들리듯 아무런 消息이 없음을 안타까와 하는 心情을 노래하고 있다.

寂無人 掩重門호미 滿庭花落 月明時라

獨倚紗窓호여 長歎息호는 츠의

遠村에 一鷄鳴호니 이긋는듯 호여라 <李明漢:瓶窩歌曲集 698>

愁恨의 밤을 밝히며 長歎息하는 때에 어디서 一鷄鳴이 憂時憂國에 젓고 있는 나의 애를 끊는 듯 하였음을 노래한 것이다. 마치 李舜臣의 ‘憂國哀吟’의 詩的 構造와 類似하다. 다만 詩的 霧圍氣가 李明漢에겐 큰 칼 옆에 찬 將軍으로서의 姿勢보다 선비로서의 姿勢를 노래하고 있다.

7) ‘昭代紀年’ “淸主問何爲斥和翼漢供曰臣子分義當盡忠孝上有君親俱不得扶護而安全之今世子大君皆爲俘虜老母存歿亦不得知良由一疏之浪陳以致國家之狼狽揆諸忠孝之道掃地蔑矣雖萬被誅戮實所甘心血以霧鼓魂去飛天歸游故國快哉誰願速死”

8) ‘仁祖實錄’ 7年 己卯 11月條

9) ‘肅宗實錄’ 元年 乙卯 11月條 “崔鳴吉諸人及金尙憲 李明漢諸人何以押入瀋陽”

울며 잡은 사미 썰치고 가지마소  
草原長程에 히 다 겨무런너  
客愁에 殘燈 도도고 시와 보면 알니라 <李明漢:瓶窩歌曲集 190>

해 떨어진 草原長程에서 殘燈을 돋우고 지셀 때 腸斷의 恨이 섞인 客愁의 情이 깊어짐을 노래하고 있다.

玉欄에 꽃이 핀이 十年이 언의덧고  
中夜悲歌에 눈물겨워 안자 있서  
슬설이 쓸은 마음은 내 혼젠가 호노라 <曹漢英:一石本 海東歌謠 217>

淸의 援兵 派遣에 反對한 萬言疏를 올려 排淸派로 몰려 四年間 瀋陽에 잡혀가 있었던<sup>10)</sup> 曹漢英도 中夜 悲歌에 눈물겨워하며 自歎을 노래하고 있다.

그의 ‘瀋獄踏靑日呈淸陰’에서 보면 恨歎하는 心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瀋獄踏靑日呈淸陰

二年猶異域  
萬里幾佳辰  
物色當三日  
羈囚恰四人  
塞雲還帶雪  
邊草不生春  
排悶憑詩句  
詩成恨轉新

王世子와 淸陰 등을 中心으로 瀋陽에 잡혀가고 腸斷의 恨을 남긴 作家는 丙子亂을 題材로 한 時調作家 總數 22名 중에서 7名으로 3分の 1을 차지하고 있으며, 作品은 總作品數 52首 中에서 25首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곧 丙子胡亂을 題材로 한 時調의 內容의 主流가 腸斷의 恨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

10) ‘仁祖實錄’ 18年 庚辰 正月條 “持平曹漢英 上疏極言舟師不可調途元孫不宜赴瀋留中不報”  
‘國朝人物考’ “漢英等于瀋中而蒙四壁霜”

다. 아울러 그 恨 섞여 詠出된 戀君·愛國·丹忠·節義·感恩 등의 內容을 통해서 볼 때 儒敎精神의 反映인 愛國愛君·愛國丹忠 등의 또한 丙子亂時調의 內容의 主流가 된다고 하겠다.

2. 丙子亂 議和後 杜門不出하여 歸故守拙의 姿勢로 國恥 悲憤을 노래한 李廷煥<sup>11)</sup>에게는 連時調型인 ‘悲歌’ 10首가 있다.

원래 悲歌는 抒情詩에 속하는 것이다. 곧 抒情詩의 感情인 悲哀·悲痛·悲感·哀愁·悲歎을 노래한 主情的 詩의 氛圍氣의 詩를 이른바 ‘悲歌’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는 西歐의 Elegy가 주로 哀悼를 內容으로 하는 詩를 뜻했지만 近代에 이르러서는 詩形보다는 內容에 重點을 두고 一般的으로 個人을 對象으로 한 悲哀·哀愁·悲歎을 노래한 짧은 抒情詩를 指稱하고 있다. 곧 詩의 內容面에서 그 類似함을 미루어 볼 수 있다.

그러나 ‘悲歌’가 匹歐처럼 Elegy의 形式이 있어 存在한 것이 아니라 定型詩로서의 時調를 통해 ‘悲歌’가 창작되어졌다. 그러므로 時調가 指導理念으로서의 朱子學의 熱烈한 信奉者였던 儒學者들에게 依하여 發見되고 發展되어 온 詩形이었다고 볼 때 國恥를 겪은 淪陷과 激情的 感情을 歌辭의 形式을 빌었다기보다 時調를 통해 表現되어졌다는 것은 當然한 結果인 性실다.

‘悲歌’ 10首에 一貫한 內容의 主流는 悲憤慷慨가 섞인 自歎에 있고, 그것을 10首中 6首가 된다. 그밖에 戀君이 2首, 感恩·醉樂 등이 각각 1首씩 나타나고 있다.

반 밤둥 혼자 이리 못노라 이너 삶아  
萬里遼陽을 어너듯 든너온고  
반갑다 鶴駕仙容을 친히 빈듯 하여라 <松巖遺稿 悲歌 10-1>

사무친 꿈의 노래다. 꿈은 相思의 凝結로서 못내 戀戀해 하는 內的 衝動의 表現이 꿈으로 化한다 한다. 곧 生時의 意識이 꿈으로 번져 나타난 것이겠다. 그리던 두 王子를 밤중에 꿈 속에서 친히 본다는 作家의 心情에서 昇華된 詩의 感興을 느끼게 된다.

꿈을 통하여 노래한 松巖은 이어 다음과 같이 戀君의 情을 노래하고 있다.

풍설 석거친 날에 못노라 北來使者  
小海容顏이 언매나 치오신고  
故國의 못 죽는 孤臣이 눈물겨워 하노라 <松巖遺稿 悲歌 10-2>

風雪이 紛紛한 嚴冬雪寒에 北쪽에서 南으로 찾아든 철새에게 異域에서의 獄苦를 겪고 있는

11) 李廷煥號松巖 萬曆七月一日生 癸酉中進士辛亥四月二十三日卒 孝行特異聞于朝 肅廟 辛酉 命旌閭 配恭人慶州李氏墓 先堂 下同原 景廟發卯贈持平 ‘全州李氏派譜貞簡公孫秉節校對公派’

두 王子의 安否를 안타까이 물어보는 至情은 비단 上代의 遺訓에서만은 아니다. 臣者의 道理를 다한 含蓄에 松巖의 情恨이 서려 있다.

그것을 表白함에 있어 겨울 철새를 北來使者로 擬化한 곳에 한결 詩的 情趣를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異域에 두 王子를 불모로 보낸 不忠을 눈물겨워한 것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스스로가 민망해서였다.

후심 독은 후 함왕을 뉘 달래리

楚軍 三年에 艱苦도 그지업다.

어느제 漢日이 밝아 太公 오게 할고 <松巖遺稿 悲歌 10-3>

이는 松巖이 現勢的 意味로서는 中國故事를 引據하여 읊은 것이지만 潛勢的 意味로서는 瀋陽에 잡혀간 두 王子를 되돌려 오지 못하는 臣下로서의 不忠스러운 自身の 微微를 慨歎한 노래다.

곧 表面으로기 侯生이 살아 있을 때만 해도 劉邦의 使臣으로 項王에게 가서 劉邦의 父親을 돌려 주고 天下 中分의 約束을 했지만 侯生의 死後에는 項王을 누가 달랠 것인가. 楚軍과 싸운 三年間에 艱苦도 그치없거니와 그 언제면 漢나라의 太陽이 밝아 太公을 오게 할 것인가고 노래하는 거기에 秩序를 破壞한 侵略者에의 저주가 보석처럼 빛났다.

朴提上 독은 후에 님의 실람 알리 업다.

異域 春宮을 뉘라서 모셔오리

至今에 鵝述嶺 歸魂을 못너 슬허 하노라 <松巖遺稿 悲歌 10-4>

잡혀간 두 王子를 되돌려 오지 못한 臣下로서의 不忠스러운 자신의 處地를 거듭 慨歎하였다. 곧 옛적 新羅 訥祗王時에 朴提上의 忠誠心을 아쉬워한 것이다.

王弟 두 사람 가운데서 卜好는 高句麗에 未斯欣은 倭國에 각각 人質로 잡혀 갔다. 朴提上은 高句麗에 가서 불모로 잡혀 있는 王弟를 還來케 하고, 이어 倭國에 건너가서 王弟를 逃還케 하고 자기는 不還의 몸이 되었다.<sup>12)</sup>

그러한 萬古의 忠臣 朴提上과 같은 自身이 되지 못함을 목메이고 있다. 仁祖의 시름을 풀어 드릴 수 있고 異域의 春宮을 모셔올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不忠을 심히 부끄러이 自責하며 노래한 것이다.

12)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二年春正月親謁始祖廟 王弟卜好高句麗與提上奈麻還來秋王弟未斯欣 自倭國逃還”

한편 堤上이 倭國에 使臣으로 갔다가 不歸의 客이 되므로 그 아내가 슬피 戀慕하여 세 딸을 데리고 鵝述嶺에 올라가 痛哭하면서 倭國을 바라보다 죽었는데 나중에 鵝述神母가 되었으니<sup>13)</sup> 그 嶺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죽은 魂을 생각할 때 無限히 슬퍼진다는 것이다.

松巖이 이처럼 朴堤上을 引據한 것은 詩에 있어서 보편성을 곧 ‘忠’을 強調하면서도 ‘忠’의 보편적 概念을 詩化한 比論法이다.

旌丘를 돌아보니 衛사람 에엿브다  
歲月이 자르가니 淸줄이 걸잇세라  
이 몸의 헤어진 갓옷을 기워줄 이 업서라. <松岩遺稿 悲歌 10-5>

곧 明을 衛로 比喻하였다. 狄人의 侵攻에 衛사람이 無力했던 것을 淸의 侵攻에 明이 無力하였던 것으로 寓意하였다. 明과 善隣關係의 紐帶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淸의 侵攻을 당하여 끝내는 國恥의 屈辱을 당했음을 慨歎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듭된 戰爭의 殃禍로 자신의 갓옷을 기워줄 사람이 없음을 痛憤하고 있다.

朝廷을 바라보니 武臣도 하만하다.  
辛苦한 和親을 누를 두고 한 것인고  
슬프다 趙旣吏 이미 죽으니 參乘하리 없세라. <松巖遺稿 悲歌 10-6>

操守하는 處地이면서도 朝廷을 바라보니 無力한 武臣이 너무 많음을 慨歎하고 있다. 初章에 이어서 中章은 設疑法으로서 그 속엔 國恥를 안은 和親은 누를 위한 것인가고 물으면서 充分히 松巖의 斥和의 姿勢를 보여주고 있다. 終章은 趙旣吏를 빌어 斥和를 象徴한 飛躍이다. 趙旣吏라는 이름으로 斥和의 忠誠을 기리며 그들의 희생을 슬퍼했고 그런 忠臣들의 이미 죽자 參乘할 者가 없다고 痛歎하고 있다.

한편 自身이 그런 忠臣이 못된 처지를 깊이 自歎한 痛吟이다.

九重 달발근 밤의 聖廟 일경 만호려니  
異域風霜에 鶴駕인들 이즐소나  
이박에 억만창생을 못내 分別 하시는다. <松巖遺稿 悲歌 10-7>

휘영청 달밝은 밤이면 九重 높은 宮闕에 계신 仁祖께서도 지난 날의 受侮를 돌이켜 생각하면

13) ‘增補文獻備考’ 卷 107 樂考 17 “訥祗王時 朴堤上使臣倭國 不返其妻 不勝悲慕率三娘子 上鵝述嶺 望倭國痛哭而死 因爲鵝述神母”

서 마련을 더하기에 余暇가 없을 것이다.

한편 城下의 盟으로 因하여 불모로 잡혀간 두 王子의 생각에 血淚를 뿌리는가 하면, 異城에서의 困辱을 夢寐間에도 잊지 못하고 있다.

仁祖의 넓고 높은 軫念은 億萬蒼生에게까지 恩寵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모두 깨달아 聖恩에 感謝해야 하고 報恩을 다짐해야 함을 그 內容으로 감싸고 있다 할 것이니, 그 詩의 底流엔 復讐心에 詩箋이 붉게 타고 있다.

구렁이 낫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을 일 업스니 커 아니 조홀소나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실람겨워 호노라. <松巖遺稿 悲歌 10-8>

차라리 봄비에 절로 자라고 있는 저 蕞楚처럼 나에게도 그 무서운 歷史的 恥辱을 外面할 수 있는 無知를 지녔더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우리는 너만 못하여 시름에 겨워 “짓느니 한숨이요 디느니 눈물이라”(思美人曲)의 되풀이다.

歷史的 現實에 無心할 수 있는 自然보다 한 時代의 悲劇에 無心치 못한다는 점에서 人間은 歷史를 의식하고 時代를 意識하고 있기에 그것을 意識하면 할수록 시름을 이기지 못한다는 丙子國恥를 겪은 松巖의 自歎이요, 作家意識의 表白이라 할 수 있다.

‘悲歌’(8)에서의 ‘시름’은 丙子國恥의 悲憤과 自歎을 昇華시키고 있는 ‘시름’이라 할 수 있다.

조그만 이한몸이 하늘뱓켜 썩머니  
 오석구름 기픈곳의 어느거시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김줄갓하야 깔길 몰라 호노라 <松巖遺稿 悲歌 10-9>

杜門不出하게 된 이 보잘 것 없는 自身이 임금님의 은총 밖에 멀어지니 五色구름이 찬란히 떠도는 저 깊은 곳에 자리한다는 王都가 그리운들 소용이 없음은 모르지 않는 松巖이다.

임금님의 은총 밖인 하늘 밖에 멀리 떨어진 愚拙의 몸이 되어 王都가 있는 서울을 바라보니 모두가 一塵狂風이다. 생각해도 하염없고 조바셔도 소용이 없는 現象이다. 이 現實과 理想의 갈림길에서 松巖의 붓은 망서려지지만 했다.杜甫의 ‘哀江頭’ 亂句에 “黃昏胡騎塵滿城 欲往城南志南北” 그대로였다. 임계신 北斗城을 바라다볼수록 눈은 흐려지지만 했다.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경 핀져이교”가 문제 아니었다. 차라리 눈을 감고 붓을 놓아야 했던 松巖이었다.

이거사 어린거사 잠말 마라스라



漆室의 悲歌를 위하여 슬퍼하리

어디서 濁酒 한잔 얻어 이 실담 풀가 하노라 <松巖遺稿 悲歌 10-10>

丙子國恥의 悲運에 대해서 잠말하는 어리석은 것들을 썩나라의 憂患을 걱정한 女人으로 比喻한 것이다.

그러한 悲歌를 누가 귀담아 듣고 슬퍼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슬퍼할 사람이 없는 悲歌를 부르느니 차라리 한잔의 濁酒로 시름을 풀어 보자는 것이다.

단 한잔의 濁酒라 해도 그 濃度는 自然의 風流를 즐기거나 李白처럼 人生無常과 訥는 것이 서러워서 長醉하도록 마시는 술이 아니라 丙子悲劇이 안겨다준 悲憤의 苦恨을 씻기 위해서 마시려는 술인 것이다.

破愁의 술이요 忘恨의 술인 것이다. 차라리 ‘靑山別曲’에 견주는 松巖의 結論이다. 正常의 心思로는 견디기 어렵고 怨抑의 自存으로는 전혀 安靜을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다.

‘悲歌’ 10首가 漢譯되어 그의 遺稿에 傳한다.

半夜獨起坐 清魂問孤夢  
萬里遼陽路 能得片時廻  
鶴駕仙容近 依稀如面拜

風雪交紛日 爲問北來使  
小海容顏苦 幾多耐嚴冬  
故國孤臣在 未死但垂淚

侯生今已沒 誰得說項王  
楚軍三年余 艱苦已備嘗  
何時明漢日 能使太公歸

堤上死已人 無人解主憂  
異域春宮遠 誰某得脫還  
至今鴛述嶺 無限棹歸魂

回望旣丘上 可憐衛國人  
歲月空屢逝 葛籥已蔓延

身上狐裘弊 無人補綻縫

企望大朝上 武臣足且多  
辛苦和親意 不如仗以誰  
旣吏今已死 未見參乘者

九重明月夜 聖慮相應多  
異域風霜苦 邦望鶴駕遙  
此外億萬命 未遑蒼生憂

陂隰有萋楚 自長春雨余  
其性本無知 是亦最良圖  
我生不如汝 豈敢堪憂虞

渺然一身在 飄零天一涯  
遙隔五雲深 何處是長安  
隨風如轉蓬 不知有歸路

寄語癡孩者 慎莫且多談  
漆室悲歌意 不知悼者誰  
須把一盃酒 聊以解窮愁

요컨대 李廷煥의 '悲歌'는 丙子國恥를 당하여 悲憤 끝에 杜門不出하면서 創作된 麥秀歌이다. 그 詩的 內容은 憂時的 詠歎의 雰圍氣 속에 노래한 自歎이 支配的으로 많고 그 詩的 根幹은 바로 儒敎的 愛君愛國과 忠厚責人의 精神에 있다.

3. 丙子亂은 그것이 敗戰이요, 國恥였기 때문에 그 精神的인 余波가 심했다. 그것은 곧 여러 가지 特性的인 內容을 可能케 한 것이다. 따라서 上揭한 노래 外에 다른 作家의 作品에도 怨恨 섞인 여러 가지 內容이 浮刻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仁祖를 예들어 보면, 城下의 盟으로 因하여 불모로 잡혀간 두 王子의 생각에 父王으로서 仁祖는 血淚를 뿌리는가 하면, 異域에서의 困辱을 夢寐間에도 잊지 못해 한다.

庚辰二月初八日…東宮在瀋陽 以皮方席獻詩 殿下開封 觀之則 有詩曰

身留異域未歸人  
家在長安漢水濱  
月白夜心花落泣  
風清也面柳絲新  
貴鷗喫起遼西夢  
玄鳥來傳慶會春  
盡日樓臺歌舞地  
不堪回首淚沾巾

이에 仁祖께서 한 가락 노래 지으며, 壁 위에 쓰시니 이르되

내가 그리거니 베라 아니 그럴진가  
千里 蠻鄉에 일매나 그리논고  
沙窓의 슬피우는 더 덩동새야 不如歸라 말고라 내안들의 업새라<sup>14)</sup>

異域에서 昭顯世子가 뿌리는 望鄉의 血淚와 두 王子를 그리는 父王으로서의 軫念은 痛哭 그 것이었다.

다음으로, 象胥의 舌官으로 瀋陽을 往來하다가 훗날 譯官是非에 몰렸던<sup>15)</sup> 張炫의 作品으로 怨과 恨의 울부짖음이 있다.

鴨綠江 허진 날에 에엿썸 울이 넘어  
燕雲萬里를 엇의라고 가시논고  
봄풀이 풀으고 풀으거든 即時 돌아오쇼셔. <張炫:周氏本 海東歌謠 267>

한편 主和派인 洪瑞鳳과 金塗의 作品을 들 수 있다. 仁祖가 國政 때문에 깊은 鬱鬱에 잠겨 大臣들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洪瑞鳳과 金塗가 ‘國家不幸事 漸艱虞 臣等晝夜思量 徒益憂慮耳’<sup>16)</sup>라고 直言한 것은 그의 愛國一念의 一面이라 하겠다.

崔鳴吉이 ‘在瀋陽和清陰韻’이란 五言詩에서

14) 金啓 ‘龍潭錄’ 文學思想 1973. 12

15) ‘顯宗實錄’ 7年 丙午 8月條 “此輩之亡國事而爲彼人 事極寒心若不繩以重律則後弊難防請譯官…… 張炫等 並依律科罪止命拿同之罪”

16) ‘仁祖實錄’ 22年 甲申 8月條

靜處觀群動  
眞成爛漫歸  
湯水俱是水  
裘褐莫非衣  
事成隨時別  
心寧與道違  
君能悟斯理  
語默各天機

라고 한데 대하여 金尙憲이 '寄崔遲川鳴吉'이란 五言詩로

成敗關天運  
須看義與歸  
雖然反夙暮  
未可倒裳衣  
權或賢猶誤  
經應衆莫違  
寄言明理士  
造次慎衡機

라고 답한 것을 보더라도 斥和진 主和진 간에 모두 愛君愛國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作品들은 그러한 面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離別하든 날에 피눈물이 눈지만지  
鴨綠江 느린 물이 프른 빛치 전혀업니  
비우회 혀여 셴 沙工이 처음보다 하더라 <洪瑞鳳:瓶窩歌曲集 209>

瀟湘江 긴대 베혀 하늘밧게 뷘을 미여  
폐일 구름을 다 쓸어 버리고져  
時節이 하 紛紛하니 쓸똥말똥 하여라 <金瑬:瓶窩歌曲集 210>

金瑬의 '付書瀋陽'은 主和派였던 한사람으로 瀋陽에 消息을 부치는 心情을 表出한 것이다.

付書瀋陽

高梧葉落落淒淒  
 寒路三千夢亦迷  
 欲向征人寄消息  
 一行書又萬行啼

또한 ‘禦敵十難’<sup>17)</sup>을 상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鄭斗卿과 講和가 成立되자 自決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鄭蘊<sup>18)</sup> 등의 作品이 있다.

君平이 棄世하니 世亦棄君平을  
 醉狂은 上之上이오 時事는 更之更이라  
 다만지 淸風明月은 간곳마다 좃닌다. <鄭斗卿:周氏本 海東歌 220>

册덤고 臆을 여니 江湖에 白鷗적다 .  
 往來하면서 모습뜻 먹어놓고  
 앓구려 功名도 말고 너를 좃너 놀리라. <鄭蘊:瓶窩歌曲集 251>

한편 胡敵을 殺傷多虜한 戰功을 내세웠던<sup>19)</sup> 鄭太和와 罔極한 國事に 不勝嗚咽하던<sup>20)</sup> 金育과 姜復中, 李貴鎭 등의 作品이 있다.

술을 醉케 먹고 두렷시 안자시니  
 億萬시름이 가노라 下直한다.  
 아히야 蓋 마득 부어라 시름 餞送하리라 <鄭太和:瓶窩歌曲集 217>

즈너집의 술 익거든 부터 날을 부르시소

- 17) ‘國朝人物考’ “丙子朝廷方斥和而 淸兵朝夕且至國事無一可特斗卿 疏陣十事又論備禦急務十條設爲 問答名曰 禦敵十難上之皆不納”
- 18) ‘國朝人物考’ “丙子扈駕入南漢崔鳴吉約明日 車駕下城蓋怒曰 寧達國以君降虜吾耻之拔佩刀自刺 刃沒腹中城中皆大驚莫不悲其義上命御醫視之命自官供 給教之昇至鄉里嘆曰 主辱矣臣死已遲更以何 心與凡人齒供賦稅食妻子之養乎及入 金猿山中 披草爲屋”
- 19) ‘國朝人物考’ “丙子爲元帥從事丁丑正月師兎山虜騎大至元帥遁大軍遺太和倉卒聞收余卒據縣館力戰 殺傷多虜大挫而汝人皆壯之六月按節湖面”
- 20) ‘仁祖實錄’ 15年 丁丑 6月條 “國事罔極 不勝嗚咽……雖聞有變 而中朝之人 匿不明言 故未能的始 於 聖節賀班 方得備聞矣 且聞祖大受義子 被擄在於瀋陽”

草堂에 꽃 피거든 나도 자니를 請히옵시  
百年 덧 시름업슬 일을 論議코져 호노라 <金堉:瓶窩歌曲集 844>

奴儂은 自滅하고 國家는 太平하니  
天下蒼民이 樂有余 썬이로다  
淸溪八十衰翁도 興을 게워 호노라. <姜復中:淸溪歌詞 42 戊寅元朝歌>

靑聽馬 여윈 後니 紫羅裙도 興盡커다.  
나의 風度야 업다 호라만는  
世上에 至極한 公物을 돌려 불가 호노라 <李貴鎭:瓶窩歌曲集 328>

끝으로 孤山 尹善道の 作品에서 丙子亂前後의 國情을 管見키로 한다. 특히 尹善道는 丙亂이 일자 鄉里에 잠겨 ‘山中新曲’을 부른 避隱이다. 山水 바위 아래다 茅屋을 짓고 사는 孤山의 去國은 一身의 俱安보다도 國權을 左右할 수 없어 차라리 숨은 것이다. 그의 ‘夢天謠’ 三章에 보면

“魏詩曰 園有桃 其實之設 心之憂矣 我歌且謠 不知我者 謂我士也驕 彼人是哉 子曰何其 心之憂矣 其誰知之 蓋亦勿思 杜子美 詩曰 取笑同學翁 造歌彌激烈 非無江海志 瀟灑送日月 生逢堯舜世 不忍使永訣 夫我咨咨咏嘆之余 不覺其發於聲 而長言之 豈無同學 嗟嘆之辭 子曰何其 言之詭也 然而自不能已者 是誠所謂 我思古人 實獲其心者也”

<孤山遺稿 卷 6下 15>

의 後題까지 곁들여있다. 곧 仁祖를 堯·舜의 위에 치켜 받들려는 至忠의 信條는 결국 “窮年憂黎元”의 情恨을 읊진 憂國歌다. 그 全章은 다음과 같다.

상해런가 꿈이런가 白玉京의 올라가니  
玉皇은 반기시나 群仙이 꺼리느다  
두어라 五湖因月이 내 分일시 올랐다. <孤山遺稿 27>

이 作品은 孝宗 3년에 王으로부터 特召되어 上京하였 을 때 지은 作品이다. 孝宗 3年 이 무렵은 孝宗이 北伐計劃을 推進하려던 때이다. 17年만에 入京한 孤山은 孝宗이 반겨 주심을 感謝한다. 그러나 朝臣들이 꺼려 결국 排斥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怨恨을 가슴에 품은 채 世上을

떠나 고요히 山手間에 와서 烟月을 벗삼아 살아가는 것이 내 분수임을 읊은 것이다.

뜻춤의 꿈을 꾸어 十二樓에 드러가니  
玉皇은 우스시되 群仙이 꾸짖는다.  
어즈버 百萬蒼生을 어느 결의 무르리 <孤山遺稿 68>

朝臣들의 방해로 退闕하지 않으면 안 될 孤山의 怨과 恨이 찬 悲愴한 心情을 읊은 것으로 百萬蒼生을 염려한 憂國의 念을 表白한 것이다.

하늘히 이저신계 모습 術로 기워낸고  
白玉樓 重修홀제 엇던바치 일워낸고  
玉皇과 술와보자하며니 다름하야 오나다 <孤山遺稿 29>

임금님께 아뢰 말씀도 다 못하고 退闕하여야 할 失意한 政治家의 慨歎이다. 世運을 바로잡아 보려는 憂國의 情을 노래한 詩人의 感情이 吐露되어 있다.

孤山은 丙子亂을 契機로<sup>21)</sup>해서 本格的인 避世生活이 展開되어 孤山이 短歌의 面貌를 技量面에서 또한, 內容面에서 나타내어 이른바 作興爲主의 自然派 詩人으로서 韓國文學史上에 있어 第一人者의 位置를 차지했다.

이 '夢天謠'는 孤山의 末期作品으로 丙子胡亂을 겪은 후의 朝野의 不調와 密着된 總和를 흐리는 猜忌와 嫉妬를 題材로 한 것으로 孤山의 人生觀에 가장 잘 表出된 作品이라 하겠다.

不調와 不和로 國論의 統一을 기하려는 孝宗의 治政은 참으로 多事多難했다. 게다가 年事도 좋지 않아 救荒과 救恤의 앞가림부터가 다급했다. 그러나 國祿을 타는 官員부터가 支離五裂의 처지였다. 一國의 憲章이 亂後의 收復을 미끼로 여지없이 紊亂했다. 따라서

“危亂之時 世亂之時 世祿之家 不顧國事 無意仕官 雖用此輩 心不在公 無所裨益 徒煩往來 故使之勿擬耳” <仁祖實錄 17年 己卯 2月條>

라는 代目에서도 그 一端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에 北伐思想을 反映한 李滉, 申汝哲, 林慶業 등의 作品이 있으나 이것은 章을 달리해서 言及하기로 하겠다.

21) 洪宇遠의 '盤狀'에 “丙子後 無復當世意 謝絕人事 尋山人海 擇泉石之勝而居焉 引流種樹築亭其上 以寓山水之樂 置琴笛歌舞 使習稀調緩節 時時既聽 以托其懷而宜壹鬱 又作山中新曲 漁父詞 以見其志”

위와 같이 尹孤山을 비롯한 10名의 作品 속에 君王의 特召을 받아 上京했음에도 朝臣들의 排斥을 당하여 失意에 찬 怨恨의 情과 憂國憐民을 노래한 孤山의 '夢天謠'가 있고 張炫의 戀君의 情을 노래한 作品이 있으며 洪瑞鳳의 別恨을 노래한 作品, 金漣의 憂國의 念을 읊조린 作品들이 있다.

그리고 鄭斗卿 鄭蘊 등의 怨恨이 사무친 끝에 自然에 沒入하여 避隱의 情을 노래한 作品이 있는가 하면 鄭太和, 金堉 등의 醉樂의 情을 노래한 作品이 있고 姜復中의 感恩의 情, 李貴鎭의 自歎을 노래한 作品들이 있다.

## II

壬(1592~98)·丙(1636~37) 兩亂은 韓國史上 未曾有의 戰亂이었다. 儒敎之國의 禮儀로 다져진 道德은 땅에 떨어져, 아름다운 自然으로 둘러싸인 錦繡江山은 7년에 걸친 장기적인 戰爭의 風塵을 겪게 되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慘景을 이루었고 國家事情은 이른바 精神的으로, 經濟的으로 莫大한 被害와 傷處를 입었다.<sup>22)</sup>

더구나, 壬辰亂을 겪은 지 30年만에 丙子亂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極度로 荒廢한 慘狀을 焦土의 6.25 動亂으로 미루어도 가히 推測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sup>23)</sup>

한마디로, 壬辰倭亂에선 戰禍를 많이 입었지만 屈伏은 없었다. 그러나 丙子胡亂은 城下의 盟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前者의 物的 禍變에 견주기 어려운 精神的 打撃이었다. 壬辰亂을 題材로 한 勇감한 민족적 敢鬪精神은 꿈에서까지 복수하는 小說 및 歌辭의 出現까지 나타나게 했다. 그러나 壬辰亂을 題材로 한 時調는 극히 드물다. 반면에 丙子亂時調가 壬辰亂時調보다 상당수에 達하고 있음은 극히 대조적이다.

곧 시조에 있어선 壬辰亂은 勝利에의 감격을 노래하기에는 사실 詩的 契機의 感격적인 것이 아니었다. 다만 受難의 傷心이 南海의 승리로서 가시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丙子亂은 오직 百世難渝의 恥辱에 떨며 밤을 밝히는 悲憤慷慨만이 있어, 그런 心的 狀況이 壬辰亂보다는 다소 短歌의인 계기가 되어 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2) '黑龍錄'에 壬辰亂의 慘狀을 "팔도 백성이 난을 보지 못하다가 뜻밖에 난을 당하니 남녀노소 없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여 피난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이러한 울음소리 산천에 낭자하니 그 가련하고 불쌍한 경상 차마 보지 못할러라"고 記述하고 있다

23) '江都錄'에 丙子亂의 悽慘한 斷面을 "賊退後 滿目腥膻驚心灰燼 累累赤子 或一 二歲, 三 四歲 呱呱者 匍匐者 撫尸而哭者 枕尸而死者 呼父呼母 東瞻西顧 聚聚屯屯"이라고 記述하고 있는 代目이 있다 한편 張顯光의 五言詩 '亂後歸故山'에서도 "不堪鄉國戀 千里策蹇驢 節古春光消 人消境落虛 山河風雨後 日月晦寒余 剝盡繁華跡 渾如開闢初"라고 丙子亂의 慘狀을 엿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壬辰亂이 7年の 長期戰임에 비하여 歌辭와 小說 및 傳說<sup>24)</sup> 등의 登場을 促求했고 丙子亂이 電擊戰이었으므로 해서 時調를 빗게 한 要因이 되지 않았는가 臆測한다.

端的으로 言及해서 壬辰亂時調의 作品數가 적지만 李舜臣의 時調에는 倭亂과 싸워 勝利를 거두려던 主体意識의 命脈이 作品上에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反面에 丙子亂時調에는 李滄을 비롯한 몇몇 作品에 淸에 대한 復讐欲에서 빗은 北伐思想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本攷는 壬·丙 兩亂 題材의 時調를 比較 考察함에 있어서 첫째 時代的 狀況을 中心으로, 둘째 作品 內容을 中心으로, 셋째 修辭 技巧을 中心으로 展開키로 한다. 對比하는 時調는 可能한 限 政治的 時代的 狀況이던 國難에 直面하여 主体·北伐을 反映하고 있는 作品을 對象으로 삼아 論旨의 利點을 取한다.

1. 壬辰倭亂은 振古에 없는 動亂이었다. 그것은 朝鮮 王朝側으로서는 一種의 軍事的 空白期에 당한 奇襲的인 戰爭이었다.

朝鮮 王朝의 社會體制는 16世紀에 접어들면서 이미 變化해 가고 있었다. 이른바 暴君 燕山의 暴政으로 王室의 權威가 損傷되었고, 中宗이 貴族層의 政變으로 王位에 오른 後 仁宗·明宗 등 어린 王과 宣祖와 같은 傍系의 人物이 王이 됨으로써 사실상 王權은 政治에서 疎外되고, 貴族의 權限이 強化되었으며, 이 때문에 兩班社會의 權力鬭爭인 黨爭이 빗어지기 始作하였다.

이른바 黨爭은 國家의 利益보다 오로지 黨의 利益과 個人的 利益으로 치우쳐 國政 報告에도 兩論이 對立되는 奇現象을 낳았다.

따라서 國難을 앞둔 東西의 黨爭은 극에 達해 軍備보다는 爭論에 國力이 消盡되는 悲劇을 齊來하였던 것이다. 끝내는 義州에 蒙塵해서도 國論統一을 收拾치 못하는 朝野이었다. 겉으로는 亂定을 위한 總力인 듯 하지만,

干戈誰着老萊衣  
萬事人間意漸微  
地勢已從蘭子盡  
行人不見漢陽歸  
天心錯莫臨江水  
廟筭淒涼對外暉

24) 朴榮濬編 '韓國의 傳說' 을 中心으로 筆者가 分析해본 結果 壬辰亂을 素材로 한 傳說이 46篇이 나 되는데, 그 중 壬辰亂의 國亂을 克服하려 했던 內容을 反映한 傳說이 22篇이 된다 그만큼 長期戰이란 게 叙事的이고 詩的이 못되었다는 例證이 된다.

聞道南兵近乘勝  
幾時三捷復王幾<sup>25)</sup>

이른바 “天心錯莫臨江水 廟算淒涼對夕暉”의 各人各色이었다. 곧 宣祖는 鴨水에 잠기는 마음을 달래고, 大臣들은 夕陽만 바라보는 淒涼이었다.

여기에 宣祖의 五言古詩는 당시의 實相을 밝힌 明證이기도 하다.

國事蒼黃日

誰能李郭忠  
去卯存大計  
恢復仗諸公  
痛哭關山月  
傷心鴨水風  
朝臣今日後  
寧後更西東 <列聖御製 龍灣書事>

이라고 宣祖가 慨歎할 程度였다. 오죽했으면 “朝臣今日後 寧後更西東”을 詰責하였는가 생각할 때 東西의 黨爭은 이미 亡國의 비릇이었다.

더구나 16世紀에 備邊司라는 새로운 政府機關이 생겼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國防事務 담당기관으로 發足했으나 執權貴族의 國政 全般에 걸친 議決機關으로 變할 정도였다.

이러한 軍事的 空白期에 外侵을 당한 것이 바로 壬辰倭亂이다. 따라서 壬辰倭亂이 일어났을 때는 官軍은 거의 기능을 發揮하지 못했고, 이 國難을 당하여 倭敵과 싸웠던 것은 義兵과 民兵들이었다.<sup>26)</sup>

25) 李好閔 ‘五峯集’ 卷4張 1~2 ‘龍灣行在 聞下三道兵進攻漢城’

26) ‘黑龍日誌單’에 보면 “이 때에 각도 의병이 창지하매……의령의 박재우… 전 제독, 벼슬하던 조원, 나주의 김천일, 양산도 합천에 정인홍과 손인갑과 김주민과 고령의 김면과 수원의 홍은수 홍계남과 봉산의 김만수와 중화의 김진수……고경명……전현감……임계명…” 등등 義兵에 관한 記述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이 때 황해도 묘향산에 휴정이라 하는 대사가 있으니……이 때를 당하여 대가(大駕)가 의주로 파천하셨다는 말을 듣고 대경하야 그제사 의업이와 휴정과 영규로 더불어 의논하여 각도 사찰에 격서를 전하야 의병을 모집할 새 의업으로 도총섭을 삼고 호남으로는 처영이를 보내고……각각 본도 승병을 불러 수천인을 모아 평양으로 향할새……그 공로가 적지 아니 하더라”는 代目을 볼 수 있다

壬辰亂을 決定的으로 勝利로 이끈 것은 憂國忠念에 불타는 李舜臣 (1545~1598)의 主体意識과 그의 卓越한 人格과 領導力에이 끌리어 모여든 沿海岸地方의 民兵力에서였다.<sup>27)</sup>

李舜臣은 항상 有備無患의 姿勢로 壬辰亂 前後를 直視했었다.

十年 7은 말이 匣裡에 우노메라  
 關山을 바라보며 새세로 묻져보니  
 丈夫의 爲國丹衷을 어느새 드리울고 <李舜臣:가람본 靑丘永言 85>

十年이나 간 칼이 칼집에서 울고 있다. 칼을 十年이나 갈고 丈夫의 爲國丹衷을 다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해 보는 意志에서 英雄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備邊司마저도 國防事務의 機能을 다하지 못하는 때에 十年이나 칼을 갈고 생활한 李 舜臣의 爲國氣概가 作品上에 강열히 나타나 있음을 본다.<sup>28)</sup>

閑山섬 달붉은 밤의 戍樓에 혼춌안자  
 큰 칼 녀회치고 집픈시름 하는적의  
 어디서 一聲胡笳는 나의 9를 굶나니 <李舜臣:瓶窩歌曲集 200>

이 時調는 壬辰亂을 노래한 것으로 너무나 代表的 作品이다. 漢譯된 詩를 보면

閑山島月明夜 上戍樓  
 撫大刀深愁時 何處一聲羌笛更添愁<sup>29)</sup>

라고 되어있다. 李舜臣의 憂國을 위한 깊은 시름은 다음의 漢詩를 빚고 있다.

水國秋光暮 驚寒雁陣高  
 憂心輾轉夜 殘月照弓刀<sup>30)</sup>

한마디로 그의 詩는 慷慨 菲惻하여 熱烈한 愛國思想을 鼓吹했다.<sup>31)</sup> “嗚呼壬辰之禍慘矣 泱旬

27) 東京大學 教養學部 日本史研究室編 ‘日本史概說’에 “文祿元年(1592)慶長二年(1597)의 二回에 걸쳐 朝鮮出兵이 행해졌지만, 어느 것이나 朝鮮人民의 抵抗과 明軍의 援助 때문에 成功치 못했고 日本軍은 厭戰氣分에 빠져 苦戰을 계속했다”는 代目이 있다.

28) 本 時調는 作家의 眞實을 가리키는 사뭇 어렵다 이는 그의 詩文集에는 보임이 전혀 없고 다만 歌曲集에서만 보임에서다.

29) ‘李忠武公 全書’ 卷1, ‘閑山島歌’

30) ‘前掲書’ 卷1 ‘閑山島 夜吟’

31)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p. 237

之間 三都失守 八方互解 乘輿播越 其得有 今日天也”(憲憲錄)의 암담한 狀況을 忠武公은 여러 차례의 海戰에서 “必死則生, 必生則死”(亂中日記)의 殺身報國精神으로 倭敵과 싸워 勝利를 거두어 倭敵으로 하여금 완전히 敗北케 하였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忠武公의 ‘亂中日記’는 無에서 有를 낳은 奇蹟을 담기에 북방아가 잦았다. 그렇다고 朝廷의 우대를 받은 忠武公도 아니었다. 亂中에도 私利가 앞서고 國利에도 功名이 앞선 당시의 朝臣들이었다.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范仲淹)은 입으로만 외는 말이었지 실제로는 그와 反對였다. 宗廟 社稷을 건지고 國家와 民族의 安寧을 一戰에 둔 忠武公의 어깨는 펴질 수가 없었다.

달밝은 밤, 戍樓에 혼자 앉아 海上에서 밤을 지낸다. 때로는 輾轉不寢의 連續되는 나날을 보낸다. 이 時調는 海上에서의 激戰이 있을 때마다 勝利를 거둔 李舜臣의 憂國의 一念을 여실히 노래한 것으로 ‘憂國哀吟’이요, ‘壬辰陣中吟’이다.

곧 憂國一念을 表白한 이 作品의 밑바닥에는 壬辰亂을 勝利로 거두어야 하겠다는 意志가 있고, 그것은 主體意識으로 나타나 있다. 主體意識은 바로 憂國이다. 憂國한다는 것은 나라를 근심하고 나라를 위해 犧牲하는 것이다.

李舜臣의 ‘憂國哀吟’은 단순히 나라를 근심하는 哀吟이 아니라 國難克服을 다짐하여 나선 憂國인 것이다. 그에게 憂國과 護國은 단순한 義務가 아니라 久遠의 信仰 그것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 時調는 높이 評價를 받아야 할 것이다.

松潭 白受繪 (1574~1642)는 壬辰亂을 당하여 19歲의 몸으로 倭敵에게 捕虜가 되어 갖은 구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寧爲李氏鬼不作犬羊臣’이라고 抵抗하여 9年間 日本에 잡혀간 몸이 되어서도 爲國丹忠을 노래하였다.

寒燈 客窓의 벗업시 혼자 안자

넙심각하며서 左右을 도라보니 北海山가 燕獄인가 이 어둠이라 홀췌이고

淸風과 明月을 벗삼은몸이 爲國丹忠을 못내 슬허호노라

<白受繪:松潭遺事.和京都人安仁壽歌 3-3>

壬辰亂時 捕虜의 몸이면서도 敵地에서 屈하지 않고 爲國丹忠하려 한 그의 사무치는 詩情 속 에 主體意識이 깔려 있음을 쉬 느낄 수가 있다. 壬辰亂 중 日本에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10萬名에 육박하는 대단한 人員이었다. 一部 倭將들은 포르투갈 商船을 우리나라 앞바다에 끌고와 사로잡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奴隸로 팔기도 했고, 이른바 陶工, 印刷工, 金工, 製紙工, 瓦工, 木工, 石工, 刺繡工, 밀봉사육에 이르기까지 集團 移住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도 敵地에서 屈하지 않고 爲國丹忠한 白受繪는 강렬한 主體意識의 所有者였음이 分明하다 하겠다.

其他의 壬辰亂時調 중에서 壬辰歌辭 ‘太平詞’를 創作한 蘆溪 朴仁老(1561~1642)는 歌辭의 경우보다 時調에서 노래할 만한 일인데도 좋은 作品을 남기지 않고 있다. 다만 임진왜란을 直接 體驗한 사람으로서의 風霜에 不變하고 志操·節概가 높고 굳셈을 노래한 것이 있다.

江頭에 屹立하니 仰立에 더욱높다.

風霜에 不變하니 鑽之에 더욱굳다.

사람도 이바회호하면 大丈夫가 호노라 <朴仁老: 蘆溪集 33>

이몸이 되올진디 무엇이 될고하니

崑崙山 上上峯 落落長松 되앗다가

群山에 雪滿호거든 혼조 웃죽호리라 <權輶: 瓶窩歌曲集 202>

權輶(1569~1612)의 고고한 節義는 그의 詩六集인 ‘石洲集’에 넘치고 있다. 그의 七言古詩 忠州石<sup>32)</sup>은 어지러운 世潮를 諷諭한 노래로 이 時調의 內容과도 그 命脈을 갖는다. 이 時調는 獨也青青의 落落長松보다도 굳은 節義, 곧 主体意識이 問題다. 이밖에 高敬命(1533~1592)의

靑蛇劍 두러메고 白鹿을 더줄토고

扶桑 디는 호에 洞天으로 도라드니

仙宮에 鍾磬맑은 소리 구름밭게 들리더라 <高敬命: 花源樂譜 196>

時調가 있는데, 義兵을 일으켜 錦山 戰鬪에서 戰死한 義人의 遠觀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다만 그것이 李舜臣의 時調처럼 現勢의으로 表白되어 있지 않다는 것 뿐이다. 主体意識을 노래한 壬辰亂時調를 통해서 볼 때 우리 祖上들이 특히 李舜臣이 그 일마나 國難克服에 戰爭을 勝利로 이끌게 愛國心을 나타내었던가를 알 수 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壬辰亂의 勝利가 결코 詩的 契機의인 것이 못되어서였는지 壬辰亂時調에서 主体意識을 노래한 것이 불과 몇수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2. 丙子國恥는 우리 民族史上 一大 恥辱의인 事件이었다. 이 事件으로 인해 東方禮儀之國인 우리 나라는 오랑캐에게 降伏을 하고야 말았다.

곧 光海朝에는 名分과 實利의 兩面外交政策으로 外侵을 制禦했지만 仁祖朝에 와서는 이른바

32) “忠州美石如琉璃 千人剔出萬牛移 爲問移石向何處 去作勢家神道碑 神道之碑誰所銘 筆力竭 強文滋奇 皆言此公在世日 天姿學業超等夷 事君忠且直 居家孝且慈 門前絕賄賂 庫裏無賊資 言能爲世法 行足爲人範 平生進退間 無一不合宜 所以垂顯刻 永永無磷緇 此語信不信 他人知不知 遂令忠州山上石 日銷月鏤今無遺 天生元物幸無口 使石有口應有辭”

仁廟反正으로 得勢한 勳威의 勢力이 野黨을 彈壓하여 鮮明하게 親明事大의 名分論을 壓倒적으로 내세우자 그 結果 淸의 侵入을 招來한 것이다.

丙子胡亂의 뒷처리 때문에 昭顯世子와 鳳林大君 등은 人質로 瀋陽에 잡혀가게 되었고, 鳳林大君은 그 처참한 異域의 人質生活의 困辱에서 벗어나 王位에 오르자 온 民族이 念願하고 있는 淸에의 복수심을 한데 모아 北伐政策을 樹立하기에 이르렀다.

그러기 위해 不調와 不和에 잦은 國論의 統一을 기하려는 孝宗의 治政은 참으로 多事多難였다. 게다가 年事도 좋지 않아 救荒과 救恤의 앞가림부터가 다급했다. 그리고 國祿을 타는 官員부터가 支離五裂의 처지였다. 一國의 憲章이 亂後의 收復을 미끼로 여지없이 문란했다. 따라서

“危亂之時 世亂之時 世祿之家 不顧國事 無意仕官 雖用此書 不心在公 無所裨益  
徒煩往來 故事之勿擬耳” (仁祖實錄 17年己卯 2月條)

으로도 그 一端을 엿볼 수 있을 程度다. 이런 狀況을 收拾하고 北伐政策을 樹立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國權과 民族의 自尊 때문이기도 했다.

丙子胡亂은 性格上으로 壬辰倭亂 以上の 敵愾心を 자아내게 하였다. “方今士大夫欲雪 南漢之恥 比皆士搢 腐憤臂之秋也”<sup>33)</sup>의 心的 狀況 그것이었다.

肅宗實錄에 보면 孝宗大王은 國小力弱을 헤아리지 않고 개연히 明에 대한 大義之志를 이끌어 보려고 여러 臣下와 함께 ‘至痛在心’ 혹은 ‘日暮途遠’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34)</sup>

한편 孝宗은 武力을 길러 淸에 雪辱할 뜻을 깊이 간직하여 옛날 聖人의 用兵之道를 連講하기도 하였다.<sup>35)</sup> 그리고, 孝宗은 奮勇之志의 將帥와 軍務에 鍊整한 軍士가 必要함을 言及하고 있다.

“侍讀官 閔鼎重曰 我國軍政之紊亂 實由於不擇將 將非其人 故軍律不嚴 斥候不密, 其何以探摘情而出奇兵乎 上曰我國將帥 與敵對壘 無捐軀奮勇之志, 愛護一身 不恤其他 擇其偏裨及軍士有勇力者 置之左右 乃以假軍官 爲斥候之任 責之以審察敵情 良可笑也 予曾見慮人 活兵之術 鍊整軍務 慣習兵法 行陣肅然”<sup>36)</sup>

이러한 孝宗의 意圖가 北伐計劃을 樹立함에 이르게 한 것이리라.

33) 朴趾源 ‘熱河日記’ 중의 ‘許生傳’

34) ‘肅宗實錄’ 15年 己巳 正月條 “上曰 予我 孝宗大王 不量國小力弱而既有倡明大義之志 每與群臣言 或曰 至痛在心 或曰 日暮途遠 未嘗一日而忘 辱周也”

35) ‘孝宗實錄’ 3年 壬辰 2月條 “知經筵 朴筵曰 近來殿下連講 古聖人用兵之道”

36) ‘孝宗實錄’ 3年 壬辰 5月條

百世難前의 恥辱을 노래한 丙子亂題材의 時調는 52首나 되나 그것과는 달리 이러한 北伐思想이 丙子亂時調에 깃들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곧, 北伐思想을 反映한 作品으로 李滄, 林慶業, 申汝哲 등의 時調를 들 수 있다.

群山을 削平튼들 洞庭湖 | 너를 낫다.  
 桂樹를 버히던들 돌이더욱 붉을거슬  
 뜻두고 이르지못하니 늣기 설위호노라 <李滄:瓶窩歌曲集 268>

孝宗은 瀋陽에서 돌아와 王位에 오른 후 李滄(1602~1674)을 訓練大將으로 起用하여 寤寐間에도 北伐을 꾀하였다.

李滄이 作戰計劃을 짜서 孝宗에게 上奏한 代目을 볼 때, 孝宗의 微頭微尾한 用意周到는 익히 짐작할 수 있으니 다음의,

“上曰 我國軍卒 身無鎧甲 猝然遇敵 難禦矢石 若用木楯則善矣 訓練大將李滄曰 木楯則運行甚難 臣意以爲 軍人各持一大布帛 臨急盛土 以防其衝突之勢 則不下於木楯矣 上曰然 曾聞明將張樞之兵 皆持布帛遇胡騎於大野 以帛盛土爲壘 胡兵不敢逼云矣”<sup>27)</sup>

등의 記錄으로도 쉬 알 수가 있다. 이런 北伐計劃은 丙子國恥의 울분을 씻고, 복수하려던 民族的 血願이었다.

이것이 國內 事情으로 失敗하자 李滄은 痛憤한 노래로서 좌절된 心情을 表白하고 있다. 곧 北伐을 통한 忠君愛國의 機會를 이루지 못해 하는 痛憤과 自歎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慷慨 쉬인 自歎은 바로 한 人間인 李滄만의 自歎이요, 慷慨가 아니라 弱少한 겨레들의 全体 울분이었을 것이다.

이 作品은 이 北伐이란 民族的 至上課業을 이루지 못해 늣어가게 된 自身을 自歎한 것이다. 이것은 丙子亂時調 중 北伐思想이 反映된 時調로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李滄은 ‘群山을 削平하고 桂樹를 버히겠다’는 氣像으로 北伐을 꾀한 意志를 나타냈는데, 그것은 바로 北伐思想의 한 斷面이었다 해도 좋다.

이어 李滄은 北伐을 推進하려던 氣概를 다음과 같이 表白하고 있다.

諸葛亮은 七從七擒하고 張翼德은 義釋嚴顏호였느니  
 성십다 華客道 좁은 길로 曹孟德이 살아가단말가

27) “孝宗實錄” 7年 丙申 10月條

千古에 凜凜호 大丈夫는 漢壽亭侯 | 신가호노라 <李滄:一石本 靑丘永言 556>

한편 申汝哲도 그와 같은 流의 氣像을 노래하고 있다.

활지어 풀에 걸고 글비화 품에 품고 平原 廣野에 百萬軍 거느리고  
언지나 南蠻北狄을 七縱七擒호리오 <申汝哲;朴氏本 詩歌 202>

민족의 원한인 丙子國恥를 雪辱하기 위해 考宗이 ‘薪膽奮義’<sup>38)</sup>하여 北伐을 計劃할 무렵 勳戚家子弟들에 勸武하던 申汝哲(1634~1701)이 平原 廣野에 百萬軍을 거느리고 南蠻北狄을 七縱七擒하겠다는 당당한 氣概를 노래한 것으로 北伐思想을 反映한 것이라 하겠다.

拔山力 蓋氣世는 楚霸王의 버금이오  
秋霜節 烈日忠은 伍五胥의 우히로다  
萬古에 凜凜호丈夫는 壽亭侯인가 호노라 <林慶業:가람본 靑丘永言 281>

丙子胡亂은 甚한 大陸의 客觀의 情勢로 말미암아진 不可抗辯의 일이긴 하였다. 徹底한 親明排清派로서 力戰하였던<sup>39)</sup> 林慶業(1594~1646)은 國恥受難을 克服하려고 꺾을 수 없는 氣概를 노래하고 있다.

이 時調는 그러한 自己의 心性을 詠出한 것으로 秋霜과 같은 節義, 烈日과 같은 忠節이 바로 英雄들의 氣概요. 그것이 北伐思想의 反映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有名한 七言詩 ‘劔名’은 바로 英雄으로서의 그의 意志를 노래하고 있다.

三尺龍泉萬卷書  
皇天生我意何如  
山東宰相山西將  
彼丈夫兮我丈夫

李滄, 申汝哲, 林慶業 등의 一連의 時調는 결코 아무런 實踐도 없이 北伐을 가장하여 노래한 것이 아니다<sup>40)</sup>

저 邊方을 守備하여 노래 부른 世宗朝의 金宗瑞의 ‘豪氣歌’, 26세에 兵判을 지냈고 李施愛의

38) ‘國朝人物考’ “孝宗薪膽奮義 鼙鼓興思 今選勳戚家子弟 勸武汝哲 以諸生應命”

39) ‘肅宗實錄 7年 辛酉 3月條 “清使至林畔 召譯官言 皇帝閱史見朝鮮 親島有明將毛文龍率兵入據 講和後 林慶業與入王兵舍 攻破事”

40) 李家源 ‘前揭書’ P. 230에 “丙子胡亂이 터져서 百世難湔의 恥를 招來했고, 孝宗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實踐도 없이 北伐을 假裝하여 欺君, 誤國 文人 學者群이 등장되었던 것이다”고 言及하고 있다.



亂을 不定한 南怡 將軍의 ‘豪氣歌’ 등에 이어 壬辰倭亂時 李舜臣의 ‘憂國哀吟’에 나타나 있는 氣概는 李滄, 申汝哲, 林慶業 등이 이를 繼承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北伐思想이 갖든 丙子亂時調를 통해서 볼 때, 우리 祖上들이 그 얼마나 國恥에 悲憤慷慨했고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北伐을 推進하다가 좌절된 自歎이거나 漢土故事를 引據하여 노래한 氣概 程度밖에 詠出되지 못한 一面도 없지 않다.

#### IV

이제 丙子亂을 題材로 한 時調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1. 丙子亂으로 因해 瀋陽에 잡혀가자 腸斷의 亡國恨을 노래한 것들이 支配的으로 많다. 昭顯 世子和 鳳林大君, 麟坪大君 등의 作品과 金尙憲, 李明漢, 洪翼漢, 曹漢英 등의 作品은 모두 瀋陽에 잡혀가서 남긴 작품들로서 匪風下里的 恨을 노래한 것으로 그 中 鳳林大君은 丙子亂을 題材로 한 時調가 6首나 있어 作家中 國文學史上 王家의 代表的인 位置를 차지한다.

2. 腸斷의 恨을 남긴 作家는 丙子亂을 題材로 한 時調作家 22名 중에서 7名으로 나타나 그 3分の 1을 차지하고 있으며 作品은 總 作品數 52首 中에서 25首를 차지하고 있어 2分の 1에 가까와 곧 丙子亂을 題材로 한 時調의 內容의 主流가 腸斷의 恨을 노래한 것이라고 斷定할 수 있게 된다.

3. 腸斷의 恨을 노래한 金尙憲은 그 腸斷의 恨섞인 감정을 통해 戀君, 自歎, 憂國, 避隱, 節義, 感恩, 別恨 등 9首나 되는 多樣性 있는 內容을 노래한 作家로 特記할 수 있다.

4. 腸斷의 恨을 노래한 作品 中 그 恨섞여 詠出된 戀君, 憂國, 丹忠, 節義, 感恩 등의 內容을 集約해서 볼 때 儒敎精神의 反映인 愛國愛君, 憂國, 丹忠 등이 丙子亂時調의 內容의 主流가 된다고 할 수 있다.

5. 李廷煥의 ‘悲歌’ 10首는 丙子亂 國恥를 당하여 杜門不出하여 歸故守拙하는 자세에서 創作된 作品으로 그 詩的 內容은 ‘悲歌’ 10首 中 6首가 悲憤慷慨가 섞인 詠嘆의 雰圍氣 속에 노래한 自歎이 支配的으로 많고 이것은 時代思潮의 한 側面을 反映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詩的 根幹은 儒敎의 忠君愛國의 精神에 있다.

6. 丙子亂을 보고 원한이 사무친 끝에 避隱하여 自然에 沒入함으로 李朝 山林文學의 底流의 一面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고 그 中 孤山 尹善道는 丙子亂을 계기로 하여 自然을 사랑하고 自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한편, 원한에 사무친 ‘夢天謠’를 통해 憂國憐民의 思想을 詠出함으로써 國文學史上 가장 優秀作을 남기게 되었다.

7. 壬辰亂과 丙子亂時調의 比較 결과 壬辰亂時調의 경우 李舜臣의 國克難服을 打開하기 위하

憂時憂國을 내용으로 한 主体意識이 反映되어 있는 작품이 있고 丙子亂時調의 경우 李滄을 비롯한 몇작가의 작품에서 民族의 悲願이던 北伐思想이 反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歷史上 未曾有的 受難을 당한 時代思潮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8. 其他의 怨恨歌 속의 仁祖大王의 時調는 異域에 불모로 잡혀간 王世子를 그리는 父情을 노래한 것으로 辭說時調가 松江의 ‘將進酒辭’외에는 英·正時代에 와서 盛行했다는 것이 從來 學界의 通說로 되어 있는 바 그 空白期인 仁祖 때에 仁祖 자신이 創作했다는 점을 注目하면서 이를 國文學史上의 定立을 主張하는 바이다.

## Summary

# A Study on "Si Jo" of the themes of Byung Ja Ho Ran

*Yang Soon-pil*

After the construction of Yi Dynasty, the major diplomatical policy had been goodwill relationships with Myeong Country. The dynasty, continued nearly for 3 hundred years, had met Im Jin Oe Ran(1592~1599) - Japanese invasion into Yi Dynasty - in 1592. In 1636, due to the Chung's invasion, Byung Ja Ho Ran (1636) occurred. As a result Yi Dynasty was destroyed and set itself under the domination of Japanese forces. In such circumstance, the princes of Yi Dynasty, were taken to Chung as captures, and those subjects who suggested to continue battle against Chung forces were also taken to Chung. Therefore, the them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 of the terrible historical tragedy at that time, into the "Si Jo" (Korean original poem) literature of that century.

To complete this study, 22 writers of Si Jo, including King, Hyo Jong and Kim, Sang Hyun, and 52 pieces of works were picked up. To analyse and examine: 1) The songs of tragedy, left after they were taken into hostile country, 2) elegy written by Lee, Jung Hwan, 3) another many songs of tragedy written by other many writers, 4)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Im Jin Oe Ran and Byung Ja Ho Ran, were taken for major items of this study. As a conclusion from the study, the following decisions were made:

1. There are many, most of them, works of tragedy, left by those who were taken as captures by the hostile country during the war. 9 works by Prince, SoHyon, Prince BongRim and Prince, InPyong and 16 works by Kim, Sang Hyun, Lee Myong Han, Hong Ik Han and Cho Han Young, were exact te examples. Among them, Prince BongRim, who was captured by Chung, is the most representative one among royal family o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n the tragedy of war.

2. During the war, the writers who wrote songs of tragedy were 7 from the total of 22, and 25 works from the total of 52 works. Therefore, the main thought of the Si Jo from the theme on Byung Ja Ho Ran, is the song of tragedy which is full of burning revenge.

3. The most resistant writer among them was Kim, Sang Hyun. With the result, as the subject of the king, he had been captive in the hostile country's prison for 3 years. His miserable poems of elegy were 9 pieces and the variety of his poem subjects should be recognized in Korean History of Literature.

4. Most of the works, representing the elegy of a defeated nation, were for their country and king. In that respect, they reflect the spirit of Confucianism.

5. Lee, Jung Hwan wrote 10 poems calling such poems of defeated tragedy as "Elegy." The contents of 6 poems among them were selflamentation for country or deploration, coming from the inability to do their best for the country.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poetical spirit of the "Elegy" is the Spirit of Confucianism.

6. The pain of defeated brought great disappointment to many nobles. The typical, Yun Sun Do ran away from reality because of the painful defeat. It made him write poems with great power which led him to sing poems. Most of his works were created by such situations and reasons. His poem of "Myuon Chun Yo" - a song of dreaming heaven is just the example. Through this poem, he thought of his country's future and felt miserable for his people. It made him and his work, one of the most superior in the Korean history of Literature.

7. This study, also, makes comparison between Im Jin Oe Ran and Byung Ja Ho Ran. By the former were the works thinking and loving for his country, by Lee, Sun Sin, and the works about of later, were invasion-northern countries with full of revenge which all Korean people at that time wanted to happen. In a word, all of them were reflecting that time in literature.

8. A "Sijo" by king Injo was written about the father's love towards his princes taken to the hostile country. A common opinion up to now says that most of "Sasulsi jos" except Songkang's "Jangjin jusa" were written in the periods of Youngjo and Jungjo

But when we mark on the point that King Injo himself composed it in the period of vacancy in "Sijo", I should say that its value must be acknowledg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